
제14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특별함을 더해 국민 곁으로

고객홍보팀



2016년 11월 10일, 장장 1년여에 가까운 시간을 공들여 준비한 제14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의 시상식이 개최됐다.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시상식은 축산계에 있어서 연말 결산, 연말 시상식 같은 행사다. 1년간 생산 농가에서 출하한 축산물의 등급판정 결과를 분석하고, 축종별 전문가 의견이 반영된 선정기준에 따라 현지실사 대상 농가를 선발한다. 그리고 선정 농가에 대한 현지 실사와 최종 선정위원회를 거쳐 그해 가장 좋은 품질의 한우, 한돈, 육우, 계란 생산 농가를 최종 선정해 시상한다.

“제14회”라는 단어에서 예상할 수 있듯 매년 개최되는 행사지만, 올해는 지난해와 또 달랐다.

먼저 행사 개최일이 방역 등의 문제를 고려해 당겨졌다. 그래서 올해만 심사 대상 기간이 부득이하게 11개월(2015년 10월 ~2016년 8월)이 됐다.

대신 심사 기준과 심사 진행 과정이 더 세심해졌다. 대표적인 예로 올해부터는 친환경, HACCP, 무항생제, 동물복지 농장 인증 등 건강한 축산물을 원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새로운 평가항목을 추가해 수상농가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백종호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올해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선정기준에는 ‘건강’과 ‘안전성’이라는 특별함을 담았다.”며 “소비자가 원하는 새로운 평가 기준을 추가해 변화하는 축산업의 트렌드에 부응하고, 소비자의 만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시상식 후에는 대상 수상 농가가 직접 성공 사례를 발표하며 본인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우수 축산을 생산 사례가 더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축산물 직거래 우수업체’ 시상식이 함께 진행되며 시상식 자체도 한층 더 풍성해졌다. 최근 한우 가격 상승으로 주목받고 있는 유통형태인 축산물 직거래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것인데, 강원도 홍천군의 홍천사랑말한우 유통영농조합법인이 최우수 업체로 선정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우수 업체로는 경북대구한우협동조합 외 9곳이 선정돼 축산물품질평가원장상을 받았다.

이렇듯 더 업그레이드되고, 한층 풍성해진 행사에 시상식장은 갑자기 내린 비에도 아랑곳없이 기쁨을 함께 나누며 동참한 수상자와 가족, 친지들로 북적였다.



김경규 농식품부 실장과 국무총리상 한돈 송일환 농가



수상소감을 말하고 있는 대통령상 한우 홍수범 농가



수상의 기쁨을 함께... 복직하는 무대

그리고 모두의 큰 축하 속에 이날 시상식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영예의 주인공은 경남 김해의 한우 흥수범 농기였다.

시상식 무대에 아내와 함께 오른 그는 쏟아지는 조명 속에 수상 소감을 밝히며 환한 미소를 만면에 머금었다.

한돈 부문 대상인 국무총리상은 충남 공주시 송일환 농가가 차지했다. 특히, 그는 시상식 후 무대에 다시 서 1주일 3톤의 요구르트 급여, 비육돈 선별기 이용 등 본인의 노하우를 공개해 모두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하고 싶은 사람은 방법을 찾아내고, 하기 싫은 사람은 핑계를 찾아낸다."며 "한돈 산업이

발전하고 나 스스로가 발전하려면 노력을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면 우리 농장뿐 아니라 한돈 산업이 같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 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에 한돈 부문 김영진(충남 논산시), 육우 부문 윤용하(경기 안성시), 계란 부문 유재홍(경기 포천시) 씨가 각각 선정된 것을 비롯해 축산물품질평가원장상과 축종별 생산자단체장상 등 총 34개 농가가 이날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이날 시상식에서 이병규 축산단체협의회장은 "여러분의 피땀이 만든 값진 자리"라고 행사에 의미를 부여하며 "여러분의 피땀 흘린 노력을 지역에 전파하고, 함께 나누면 우리 축산이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대승적 발전을 부탁했다.

김병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끊임없는 관심과 소통의 농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이끌며 국내외 시장을 아울러 더욱 발전해 나갈 우리 축산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어느 해는 아니겠나만 때론 무더위 속에 이어진 폐사 소식에 마음 졸이고, 때로는 해외시장 개척 소식에 함박웃음을 짓기도 하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그리고 그 한 해를 축산인들이 모여 마감하는 자리에서 참가자 모두의 앉은 자리는 달랐으나 지난 고생을 인정받은 주인공이었고, 모두 그 보람찬 뿌듯함을 만끽하고 있었다. ☺



모두가 한마음... 다만 좀 더 긴장한 쪽이 수상자